

“‘소통·인화단결’ 전남체육인 동행 최선”

박철수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

위원회 활성화·회원종목단체 협력체계 구축 경기력 향상·현장지도자 애로점 해소 모색도

“전남체육인 모두와의 막힘없는 소통과 인화단결을 통한 ‘동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임명된 박철수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65)의 각오다. 박 상임부회장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중앙 회원종목단체, 도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학교체육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통해 체육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다고 평된다.

그는 목포대에서 34년간 카누 감독을 역임했으며,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후 올해 3월 퇴임했다. 또 대한체육회 스포츠행정위원회 위원, 대한카누연맹 부회장, 전남카누연맹 회장, 목포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학교법인 문태학원 이사장, 전남

체육회 이사 등 체육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침으로서 전남체육 진흥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7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전남체육회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탄탄한 조직체제로 전남체육의 본산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며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전남체육회가 만든 시스템을 더욱 알차게 가꾸고 정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꾸려나갈 계획이다”고 사업 방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전남체육회 비전으로 ‘스포츠 복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남체육의 새로운 도약, 선진체육 행정 구현



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력 향상 ▲대회 운영 효율성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행정·시설 지원 선진화 ▲사회공식사업 등 업무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그는 “일신 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전남체육회를 이끌겠다”며 “우수

선수 발굴·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추진해 전국체육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남체육회 운영 방향으로 ▲각종 위원회 활성화 ▲현장 지도자들의 애로점 해소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와 상호 협력관계 구축 ▲전남체육인 체육성장기금 추가 확대 조성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2022년 목포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의 차질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 경기장 시·군별 배정과 시설보안, 경기용 기구 확보 등의 업무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남 체육인이 체육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그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승화돼 전남체육 진흥과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칙과 중용의 관점에서 전남체육의 저변 확대 및 관리 운영 감독 매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애란 기자



조선대 개교 72주년 기념식

조선대학교는 지난 28일 해오름관 1층 대강당에서 개교 7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강동완 총장은 “조선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설립이념과 역사를 옹골게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며 “스마트하고 젊은 대학을 향한 대학 르네상스를 통해 ‘Great Chosun’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 야간 방범순찰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는 지난 달 30일 심야시간에 역전지출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야간 방범순찰을 진행했다.



전남선거방송토론위 고등학생 토론대회

전남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나주공공도서관은 지난 달 29일 나주공공도서관에서 ‘제7회 책속에서 길을 찾는 독서토론대회’를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영광고등학교 이해인·전현수 학생의 ‘임팩트팀’이, 우수상은 정명여자고등학교 이지원·김예은 학생의 ‘대상팀’이, 장려상은 창평고등학교 김건석·이찬혁 학생의 ‘월강반팀’이 수상했다.

초당대 설립 고 김기운 이사장 영결식

초당대학교 설립자인 고 김기운 이사장의 영결식이 지난 달 30일 오전 무안군 무안읍 초당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영결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삼석 의원, 김산 무안군수, 김휴한 목포시의회 의장, 강동완 조선대 총장, 노성기 목포가톨릭대 총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개식선언과 묵념, 고인 약력보고, 추모영상 상영, 헌화 및 분양에 이어 장례위원장인 정시제 전 농림



부장관과 박종구 초당대 총장의 조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고 김 이사장은

1920년생으로 1946년 목포에서 백제약방을 창업한 뒤 백제약품과 초당약품, 초당산업, 초은복지재단, 학교법인 초당학원 등을 설립했다. /고광민 기자



화순소방서 소방보조인력 간담회

화순소방서는 최근 서장실에서 화순소방서에서 복무하는 의무소방원과 사회복지요원 7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방지 특별교육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무소방원과 사회복지요원의 애로사항을 파악, 복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한 병영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무생활고충·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 의무소방원과 사회복지요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안전사고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해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김도연 화순소방서장은 “소방보조인력의 후생복지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수렴해 편안하고 안전한 병영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복무생활고충·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화순=서호령 기자



김형환 광주국세청장 금요조찬포럼 강연

중소·중견기업 위한 세제·세정지원 소개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달 2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광주경제총연합회 주관 ‘금요조찬포럼’에서 ‘2018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소·중견기업 세제·세정지원안’에 대해 강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세제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등 국세행

정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기업 경영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국세청의 세제·세정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청장은 “참여·협력·개방·소통 등 수평적 가치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시대에 맞춰 의식을 전환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서미애 기자



수영대회 유니폼 디자인 심의위 발족

내년 1월 최종 확정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유니폼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장 전달과 함께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조직위는 광주대회 슬로건 ‘평화의 물결 속으로’와 대회 기본이념을 표현할 수 있는 유니폼 제작을 위해 섬유·의류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6명을 지난 달 28일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심의위원으로는 김갑진 한국외국어대 연구원 구로지원장, 주태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박은주 동아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손영미 조선대 디자인학부 교수, 이미숙 전남대 의류학과 교수, 강원경 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유니폼 담당자가 위촉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유니폼의 디자인 방향과 콘셉트 선정 및 각종 색상·소재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후원업체를 통해 개발된 디자인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디자인 심의위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4~5회 정도 추가 심의위를 거친 뒤 대회 공식 유니폼을 최종 확정하게 되며, 내년 4월께 확정된 유니폼을 직접 패션쇼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성수 기자



광주지방기상청 ‘도전! 기후벨 퀴즈대회’

국제기후환경센터와 광주지방기상청은 미래세대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를 바로 알리고 녹색생활 실천력 제고를 위해 지난 달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도전! 기후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4~6학년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는 기후변화·기상·환경·녹색생활 등 관련분야에 대해 골든벨 퀴즈풀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본선·결선을 통해 송학초교 배경민 학생이 최종 기후벨을 울리는 영예의 대상(광주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동산초 안윤비 학생·동운초 김태우 학생, 우수상은 효덕초 최대규 학생·마재초 이현준·효덕초 이도윤·농성초 박세진 학생이 차지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교육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기상캐스터의 영상퀴즈와 더불어 춤과 노래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의 장기자랑 공연과 문산태권술 시범단, 팬플룻 연주의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강성수 기자



나주 공산면 독거노인세대 집수리

나주시 공산면 맞춤형복지팀은 최근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회원들과 함께 중포리 독거노인세대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독거노인 천모씨(80)는 지난 6월 28일 폭우로 지붕이 무너져,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으로 아산재단의 복지지원사업 중 재해로 인한 주거환경개선공사사업에 선정돼 집수리를 받게 됐다.

이날 봉사에는 복지팀, 협의회 이외에

도 공산면 여성자원봉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힘을 보태, 쓰레기와 악취로 골살을 앓고 있는 집안 내부를 맡김회 정리했다.

정찬용 공산면장은 “재해로 도움이 절실했던 이웃에게 민·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복지팀, 협의회 이외에 /나주=이재순 기자

인사

조선대학교

▲부총장 김재형 ▲기획조정실장 겸 대학특성화지원센터장 한지영 ▲교무처장 홍성금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춘성 ▲취업학생처장 겸 대학일자리센터장 이승권 ▲대외협력처장 김수관 ▲인사혁신처장 김재형 ▲치과병원장 손미경